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전도 전략

성경: 마태복음 5장 3-12절

Tag: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5:3-12)

교인들이 전도에 관해서 걱정들이 많다.(시찰회 많은 목사님들 보고
중)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반면에 이단은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도 했다는 소
문이 있다. 방식이 억지스럽고 뻔뻔하다. 이런 방법이 요즘에도 먹힌
다는 것이 놀랍다. 아직 정서가 나약하거나, 심지어 버젓한 사람임에
도 불구하고 영성이 빈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하고, 심지어는 보
이스 피싱에 당하는 자와 비슷하다. (뭔가 욕구가 있고, 그것을 해소

하려는 욕망을 이용함)

-자기들 끼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전도 대상자 개인정보를 색출
-공유해서 모략에 이용한다고 함.

과거 기성교회의 전도 또한 왕성하였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억지스럽고 뻔뻔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그래도 모략전도는 아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뿐이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그런 억지와 뻔뻔함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래도록 집요하게 기독교와 신앙이 메스컴을 통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되었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도 책임이 있었고, 메스컴은 악랄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대충 1/3 정도가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물론 불교계나 천주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단과 정통성 있는 교회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누가 거짓 정치인인지, 진실한 정치인 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여론이나 통계조작에 속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가짜뉴스에 몰입된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보이게 된다. - 그 이면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아졌다는 것이 핵심 이유가 되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한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덤벼드는 자들도 많아졌다. 여전히 가짜뉴스도 판을 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진실하려고 애쓰는 자들도 많아졌고, 사람들의 반응도 과거에는 악성댓글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현명한 댓글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만큼 세상이 더 이상 나빠져서는 안된다, 악

한 댓글 때문에 사회가 선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도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신천지나, 이슬람이나, 기타 이념론자들의 의식화교육이나, 현혹시키려는 자들의 네트워크처럼 악한 방법을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전략은 고금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라.

오늘 3-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 받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잘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복을 누리야 한다. 내가 먼저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고, 내 속에서부터 복을 누리고, 나의 식구와 집이 복을 누리고, 내가 사는 땅이 복된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복이 세속적인 복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대체적으로 ‘심령’은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었다.

더 쉽게 풀어 본다면 ‘생각’이다. 생각이 가난하면 복되다는 뜻이다.

생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은 생각이 부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순전하다는 뜻이다.

생각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잡생각이 많다는 뜻이다. 정직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잡생각은 아무짝에도 유익하지 않다. 생각부터 다스리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이 순전한 사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받아 들인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조금 **기독교적인 색채**를 덧입혀 표현한다면, 생각이 순전한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단순하고 자랑하려는 의도도 없고,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의도도 없이 예절을 갖추어 접근하는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복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없이는 무난한 사람이 된다. (스스로 없다는 뜻: 서먹한 낯선 마음이나, 경계심 없이, 또는 부끄러운 마음 없이 당당한 사람.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평범하고 튀지 않고, 무서워 보이지 않고, 까다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있는 사람이고,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 슬퍼서 가슴이 아픈 사람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간단하게 안타깝게 여기거나, 의례적으로 미안해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저리는 자를 뜻한다.

가슴까지 저려야 기도가 나온다. 탄식이 나온다. 공감 능력을 뜻한다. 이심전심을 뜻한다.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 영성의 실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려오는 애통을 말한다.

이런 애통은 이념에 생각이 포로 되어서 자신들의 이념을 세상에 실

힘하고 싶어 부르짖는 기괴하고 억지스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하고 영끝까지 해서 투자해도 남은 것은 빗 뿐이냐고 울부짖는다. 사정은 딱하고 동정할 만 한데, 그렇다고 그런 애통이 복이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진정 복있는 애통이 아니겠는가?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하다는 말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많다.

사람이 화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답답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누군가가 무시당할 때, 초라해질 때, 우리는 울분을 느낀다.

그리고 처음에는 참다가 마침내 참기 힘든 순간이 다가온다.

자기로서는 충분히 화를 낼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무심하다. 대부분 선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만큼은 꼼짝하게 여긴다.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는 화를 낸 자이다.

화를 내는 자는 결국 자신이 제일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손해와 연결되어 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발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불은 남의 발까지 태우게 되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화를 낼 경우 이익과 손해를 꼼꼼하게 살피고, 어떻게든지 손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는 화를 가라앉히고 더 이익을 되는 쪽으로 일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한 것은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화투에 뭔가를 섣불리 저지르지 말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 유리한 곳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으라.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복수) 배부를 것임
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란, 자기의 터전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이다.

자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는 세상을 개선하는 자이다. 세상은 항상 마땅한 일을 갈망하고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반대말은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는자, 자기의 배만 차면 더 이상 애쓰지 않는 자이다. 그러면 자기는 배부르게 될지언정 세상은 여전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채 방치된다. 공의에 목마른 자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이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전도 전략이 된다. 내가 거룩한 복을 받으려고 애쓸 때 나는 복받는 자가 된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인 것은 틀림이 없다.

자기 스스로도 복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전략을 계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전도의 전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영생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람을 얻고, 천국에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베드로전서 성경공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Tag:

베드로전서;AD 62~64년 경 박해시기.(네로황제 재위시절 54-68)

기록장소 : 로마(바벨론5:13) 로마를 바벨론으로 묘사함. 시대적 경각심을 위해서.

수신 : 아나톨리아(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소아시아 각 교회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장은 구원의 핵심과 관련된 요약 설명

-2장은 구원 받은 너희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

2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하라.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living stone 집;살아있는 돌. 교회. 베드로는 반석.

계시록2:17:흰돌 새 이름이 새겨진 돌. 이긴 당사자의 이름이 새겨짐.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

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시

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2:1-25)